

행복한 금요 편지

보고 싶은 어머니

이규석¹⁾


사)한국시민자원봉사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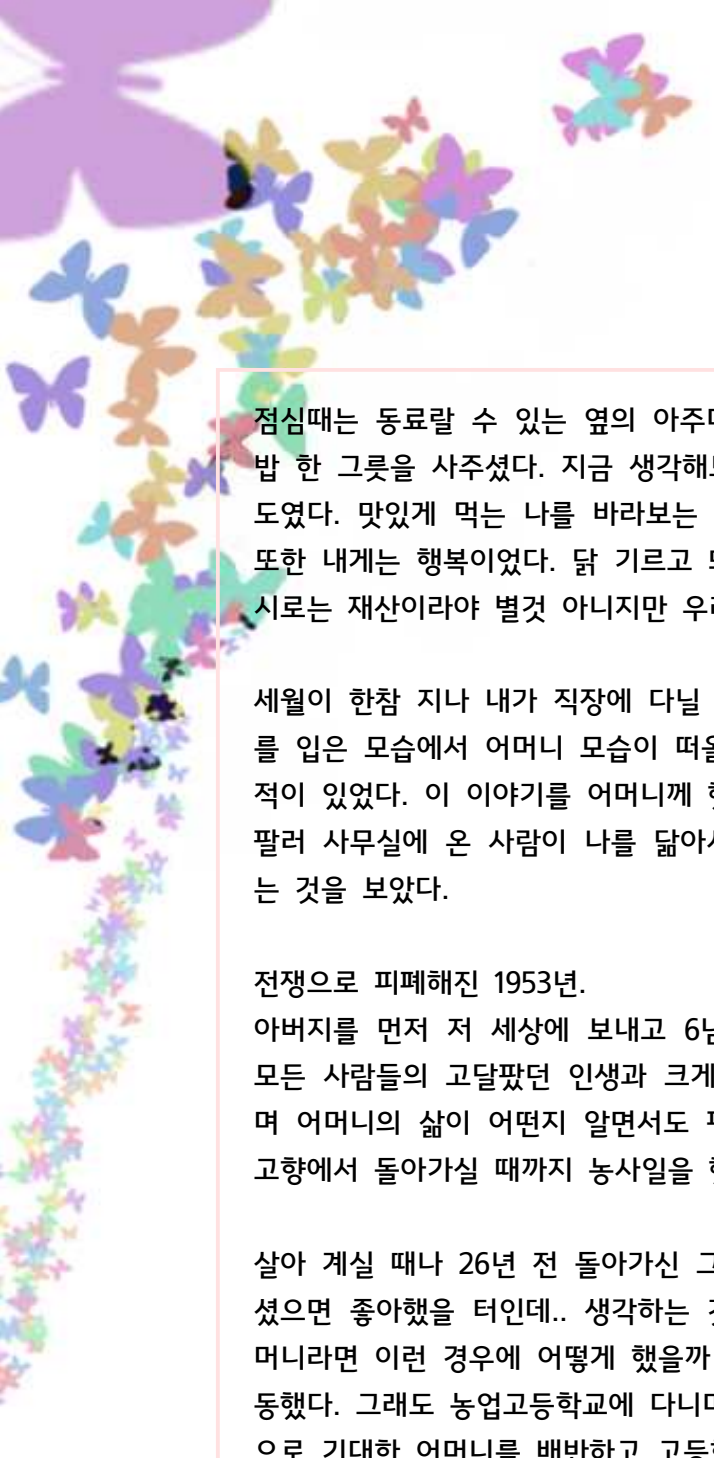
시장 모퉁이에 좌대도 없는 초라한 곳, 땅 몇 뼘 위에 채소를 놓고 파는 어머니들의 모습이 점점 보기 어려워져 간다. 마트니 뭐니 해서 구매자 가까이에서 깨끗한 매장에 잘 다듬은 다양한 채소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도 몇몇 재래시장 어귀에는 나이 드신 어머니가 도라지, 고구마 줄기를 조금 놓고 팔려고 다듬어 가며 앉아 계신 모습을 볼 수 있다.

1970~90년대 단독 주택에 살 때에 우리 집 골목 입구에는 산나물이 많이 날 때, 상추와 쑥갓 등 노지 채소가 많아질 때는 아주머니들이 이런 채소류를 보자기에 좌판 삼아 펼쳐 놓고 팔았다. 불결하기도 하고 골목을 혼잡하게 하니 그런 곳에서 사면 안 된다고 언론에 이따금 나곤했다. 나는 그 아주머니가 마치 내 어머니를 보는 것 같아서 퇴근길에 채소를 사들고 들어가곤 했다. 처음에는 아내도 의아해 했다. 시장 봐오면 되는데... 아니면 이미 시장을 봐 왔는데 웬일이냐는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 해 주었다. 6.25가 끝나던 해에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살, 2살짜리 남동생이 있었는데 농사일을 모르는 어머니는 빚을 저가며 살았다. 그러나 생존을 위해 농사일을 배워가며 지으면서, 몇 해가 지나서부터는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시장 어귀에 가서 하루 종일 채소를 팔았다. 일요일이 장날일 때면 초등학교 4학년 시절부터 지게질을 했던 내게 짐을 지워서 함께 장에 나갔다. 세월이 흐르면서 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어머니가 이고 가는 것보다 내가 지고 가는 것이 더 많았다. 그때는 뭐가 그리 부끄러운지 시장에서 아는 학생이나 동급생이 지나가면 얼른 숨고는 했었다.

1) 행복편지를 기고해 주신 이규석 한국시민자원봉사회장은 전 서울시 교육청 평생교육국장과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을 지내셨습니다.





점심때는 동료랄 수 있는 옆의 아주머니에게 채소를 맡기고 시장 뒷골목에 가서 장국밥 한 그릇을 사주셨다. 지금 생각해도 그걸 먹을 때만큼 행복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다. 맛있게 먹는 나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에는 자식 사랑이 넘쳐 남을 보는 것 또한 내게는 행복이었다. 닭 기르고 돼지 길러 팔아서 억척같이 살아 빛도 다 갚고 당시로는 재산이라야 별것 아니지만 우리 것이 쌓여갔다.

세월이 한참 지나 내가 직장에 다닐 때, 떡을 팔려고 사무실에 온 분이 흰 치마저고리를 입은 모습에서 어머니 모습이 떠올라 떡을 꽤 많이 사서 나누어 먹고, 집에 가져간 적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어머니께 했더니 당신의 일처럼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게 '떡 팔러 사무실에 온 사람이 나를 닮아서 재(아들)가 떡을 많이 샀다'하고 자랑까지 하시는 것을 보았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1953년.

아버지를 먼저 저 세상에 보내고 6남매를 키워낸 어머니 이야기는 그 당시를 살아온 모든 사람들의 고달팠던 인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세월을 집 안팎에서 함께 하며 어머니의 삶이 어떤지 알면서도 평생 모시지 못하고 나는 서울에서 살고 어머니는 고향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농사일을 했다.

살아 계실 때나 26년 전 돌아가신 그 이후에나 즐거울 때면 이런 모습을 어머니가 보셨으면 좋아했을 터인데.. 생각하는 것은 물론이고, 때때로 선택의 기로에 설 때면 어머니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을까 또는 내가 이렇게 한 것을 좋아할까 생각하고 행동했다. 그래도 농업고등학교에 다니며 어머니 농사일을 도와드리던 내가 농군이 될 것으로 기대한 어머니를 배반하고 고등학교 2학년 4월에 상경함으로써 어머니를 크게 실망시킨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죄송한 마음에 몸 둘 바를 모른다. 아주 평범한 진리로, 살아계실 때 잘 해야 할 것을 이제 생각하면 자괴감만 더 커진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2016. 07.

한선행복포럼에서는 '행복한 금요편지'이란 에세이를 통해 행복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의 소중한 편지를 기다리겠습니다.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